

# “진실 밝혀 소중했던 이들의 희생 헛되지 않도록”

## 제주항공 참사 49재 합동위령제

유가족·국토부장관·시도지사 등 “안전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49일째인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재 합동위령제가 눈물 속에 봉행됐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외빈과 정부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정치인들과 각 종교인들도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불교식 장례 의식인 49재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슬픔에 잠겼고, 유가족들의 눈가는 마를 새가 없었다.

한 유가족은 묵념과 헌화·분향이 진행되는 사이 눈시울을 붉히며 흐느꼈고, 다른 유가족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아냈다.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투입돼 수습을 이어갔던 소방 공무원들과 유가족을 지원했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위령제에 참여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조문객,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제가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씨김국이 열리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비롯한 전반적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소중했던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박 대표가 추모사를 마치며 “사랑하는 이들이여 편히 쉬소서”라고 말하자 한 50대 여성이 오열을 토해내자 어린아이는 고사리손으로 된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합동위령제 참석자들은 이후 기독교와 천주교 등이 거행하는 종교별 위령제 의식에도 참여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오후에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씨김국도 진행했다.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공항에 머문 유가족 20여 명은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 등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한 뒤 공항 시설물에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총 179명이 사망했다. 승무원 2명은 기체 꼬리 쪽에 위치해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의 안부 글귀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지자 공항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한 유족은 진정되지 않은 가슴을 내리치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중년 남성은 화면을 똑바

로 응시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침뚫은 표정을 지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가 추모사를 통해 “시간이 흘러도 유가족들은 12월 29일 그

날의 아픔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 광주·전남 ‘악성 임대인’ 30명 달해… 450억원 규모

광주 14명·전남 16명… 평균 314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총 30명에 달하며, 규모는 4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의 채무불이행자는 법인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446억91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채무불이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구상권을 청구했음에도, 최근 3년간 2건 이상, 총 2억원 이상의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들이다.

채무불이행자들의 평균 연령(법인 제외)은 42세이며, 채무불이행 기간은 평균 314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14명(채무액 286억7500만원) △전남 16명(채무액 160억1660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주식회사로, 채무액이 무려 169억72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광양의 한 건설사가 94억9260만원,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가 42억1200만원, 광주 북구 소재 건설사가 32억14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2023년 9월 이후 신규 채무액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윤준명 기자

## 광주·전남 늦겨울 강추위 예보… 5~10도 ‘뚝’

“기온변화 따른 건강관리 유의”

지난 주말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인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늦겨울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기온 변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당부된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월요일인 17일 오전에는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는 등 다시 늦겨울 한파가 이어지겠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1도, 최고기온은 5~10도로 주말동안 온화했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화요일인 18일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지면서 최저기온 영하 6도~영상 1도, 최고기온 3~5도 수준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이 기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출근길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며 “눈이 쌓인 지역과 이면도로나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http://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http://m.jnilbo.com)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